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공격 배경과 전망

하마스 '로켓탄 공격' 근절이 목표

이스라엘이 3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강행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해가 질 무렵 포병부대까지 합류한 대공세를 펼치고나서 어두워지기가 무섭게 접경지에 집결해 있던 탱크부대를 앞세워 가자지구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스라엘 "장기전 안할 것"…국제사회 중재 잰걸음

하마스 전투력이 무력충돌 종식 변수로 작용할 듯

◇지상공격 강행 배경=지상공격은 이미 지난달 31일 이스라엘 안보내각 회의에서 프랑스의 '48시간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돼왔다. 당시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상황이 무르익으면 외교적 해결책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프랑스의 휴전안에 대한 단호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와 휴전을 하게 되면 '로켓탄 공격 근절'이라는 이번 전쟁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채 하마스에 전열을 정비할 기회만 제공할 뿐이라는 게 이스라엘 수뇌부의 판단이었다.

◇지상공격 목표는=이스라엘 수뇌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공격의 목적이 가자지구에서 로켓탄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치피 리브니 외무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가자지구를 재점령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마크 레게브 정부 대변인도 전쟁의 목적이 하마스의 로켓탄 공격에 시달려온 이스라엘의 남부 주민들을 공포에서 해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상공격에 들어가더라도 '제한적' 작전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지상작전 양상은=이스라엘은 개전 첫날 최소 6개월 전부터 수집해온 정보에 근거해 지상군 투입 전까지 800차례의 공습을 단행, 하마스의 전투력에 막대한 타격을 가했다. 게다가 하마스는 2년 전 이스라엘군을 괴롭혔던 헤즈볼라 수준의 무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도 개전 이후 하마스가 발사하는 로켓 공격의 위협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하마스의 전력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고 평가했다.

◇지상작전 얼마나 갈까=이스라엘군 지휘관들은 3~4주면 지상작전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 올메르트 총리도 새해 첫날 하마스의 로켓탄 공격 사정권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 도시 베르셰바를 방문 "우리는 장기전에 관심이 없고 넓은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하길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발언은 내달 10일 치러지는 이스라엘의 총선거도 어느 정도 감안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휴전 중재 움직임도 지상작전 개시를 계기로 더욱 빨라 지고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돼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스라엘이 2년 전 헤즈볼라와 벌인 전쟁도 유엔의 중재로 34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발휘하느냐도 무력충돌 종식 시점의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공격해 들어간 이스라엘군의 뒤쪽으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전황브리핑에서 지상군이 하마스가 로켓탄을 발사했던 가자지구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유대-아랍인 불신·반목…예견된 '시한폭탄'

■이스라엘-하마스 왜 싸우나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강행하면서 제 5차 중동 전쟁의 먹구름이 현실화되고 있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간 분쟁의 뿌리는 2차 대전 이후 유대 민족의 팔레스타인 집단 이주와 이스라엘 건국으로 촉발됐다. 유엔은 지난 1947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이스라엘)과 아랍인(팔레스타인) 국가로의 분할을 승인하고 이스라엘이 2천여 년에 걸친 유랑생활을 마치면서부터 아랍국가들과의 반목과 무력충돌이 쉴 새없이 이어져왔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그 곳에서 수천년동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롯한 여러 아랍계 민족들을 강제로 몰아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족·종교도 다른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결국 충돌하게 된 것.

이번의 경우도 휴전체제를 거부한 하마스 세력이 접경지대의 이스라엘쪽으로 먼저 로켓탄과 박격포 공격을 퍼부은데 대한 응징이 발단이지만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뿌리깊은 악감정, 불신 등이 깔려있다.

지난 2005년 이스라엘 철수 이후 팔레스타인계 강경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한 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해 가혹하리만치 혹독한 봉쇄정책을 펴온데 따른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해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압바스 수반의 온건 파타당을 협상 파트너로 내세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하마스 압박 및 견제 정책을 펴오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8일간 사망 425명, 부상 1천 800여명

■공습부터 지상군 투입까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병력을 전격 투입, 양측 간 갈등이 지상전으로 확대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30분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60대가 하마스 보안시설물 50여곳에 10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면서 촉발됐다.

이스라엘은 같은 달 18일 6개월간의 휴전 기간 종료 후 하마스가 휴전 연장을 거부한 채 자국 영토로 로켓탄을 잇따라 발사했다며 대대적인 공습에 나선 것이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봉쇄정책 해제를 전제로 휴전 연장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로켓탄 발사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양 측은 파국으로 치달은 셈이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시작되자 하마스 역시 로켓탄과 박격포탄 130여발을 발사하며 반격했으나 결과는 역부족이었다.

현지 일간 예루살렘포스트가 집계한 첫날 인명피해를 보면 이스라엘 측은 사망자가 1명에 그쳤으나 팔레스타인에서는 150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쳤다. 공습 2일째인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을 집중적으로 폭격하며 이번 공격에 대한 의지를 과시했다.

공습 4일째인 지난달 30일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48시간 휴전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곧바로 다음날 내부 논의를 중단하고 공습을 재개했다.

해가 바뀌어 새해 첫날이 밝았지만 이스라엘은 프랑스 휴전안을 재차 거부한 채 공습을 6일째 이어갔다. 이날 폭격으로 하마스 최고위급 지도자 니자르 나이얀이 숨지는 등 공습 이후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공습 7일째인 지난 2일에는 하마스의 무기 보관장소로 추정되는 주택 15채가 공습을 받았다.

공습 개시 이후 8일간 진행된 교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3일 현재 2천200여명(팔레스타인 사망 421명, 부상 1천850명. 이스라엘 사망 4명, 부상 9명)에 이르고 있다. /연합뉴스

印尼 규모 7.5 강진 3명 사망

인도네시아 서부 파푸아 주(州)의 마노콰리 해안에서 4일 오전 7시 33분(현지시각) 께 리히터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한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인도네시아 관리들이 밝혔다. 또 호텔 한 동이 무너지는 등 많은 건물들이 파손됐으며, 정전 피해도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병원 관계자는 10살의 여자 어린이를 포함해 3구의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무너진 호텔에서 3명을 구조했으며, 추가 생존자나 희생자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